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체 삶 '포용 디자인' 담는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8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전시 제목은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이다. 디자인이 미적·기능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을 조명한다.

총감독은 국내 1세대 산업디자이너이자 미국 사바나 예술대학교 최수신 교수가 맡았다. 전시는 ▲세계관 ▲삶관 ▲모빌리티관 ▲미래관 등 4개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미국·일본·영국 등 19개국 429명 디자이너와 84개 기관이 참여한다.

◇ 4개 주제관으로 펼쳐지는 포용디자인의 세계

'세계관'은 세계 각국의 포용디자인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영국 왕립예술대학원의 보행 보조기기 '롤레이터', 해수면 상승이라는 기후위기 속 문화적 다리를 표현한 밀라노 공과대학원의 '부유하는 동지' 등 기후 변화 대응,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을 아우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삶관'은 일상생활 속 누구나 편리하

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소개한다. 인권동아리 '이끼'의 '모두가 바라던 바다', 푸르메재단의 '푸르메소셜랩', 인체공학적 주방도구 '옥소 그릇감 잡자칼' 등 생활 속 포용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모빌리티관'은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카이스트(KAIST)무브랩·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슈트 F1 비전 컨셉', CES 2025 혁신상 수상작 '볼륨스퀘어: 특수 재난 대응 모바일 팝업 병원', 영국 대표 택시 브랜드 'LEVOC의 휠체어·유모차 친화형 택시' 등을 소개한다.

'미래관'은 첨단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미래형 포용 솔루션을 선보인다.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 '세 번째 엄지(Third Thumb)', 고령자 돌봄 로봇 '래미(Rami)',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보조기기 등 미래 사회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체험과 참여로 완성되는 포용디

자인 부대행사로는 ▲국제 심포지엄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가 운영된다. ▲광주송정역을 포용디자인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 한 '광주 도시철도 포용 디자인 프로젝트'의 결과가 모빌리티관에 전시된다.

이번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가 생생하게 전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슨트 투어가 운영된다.

뉴노멀플레이그라운드관에서는 '놀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해진 관람 방식이나 규칙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속도와 리듬대로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터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각각A·각각B·빛·소리·자연' 다섯가지 공간에서 자기만의 놀이를 만들어가는 포용디자인의 실천 공간으로 채워졌다.

별도의 카페와 라운지 공간을 배치해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25 8.30.-11.2.



도록 했다.

개막식은 8월29일 오후 6시 광주비엔날레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포용디자인의 메시지를 담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가치를 넘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포용디자인의 철학이 광주에서 세계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나주문화재단, '뮤직로드 Step 2' 음악 토크 콘서트 개최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K-POP 열정과 혁신' 강연

나주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 '뮤직로드' 두 번째 무대를 연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8월 27일 나주 정미소에서 열리는 '뮤직로드 Step 2'에는 국내 대표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초청해 K-POP의 열정과 혁신을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뮤직로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의 배경과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기획했다.

지난 7월 25일 열린 첫 무대에는 한국록의 전설 김도균 기타리스트가 출연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 임진모 평론가는 오랜 기간 팝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방송, 집필, 강연을 통해 대중음악과 시대를 잇는 깊이 있는 해석을 전해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K-POP이 가진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미래 가치를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며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은 네이버 폼(naver.me/



GagzF07m)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 접수도 함께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병태 나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뮤직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와 이야기를 접할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썸머싱어즈-맘마미아!' 개최

전 세대 사랑받은 영화 <맘마미아!> 주제곡, 합창으로 재해석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주현)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30일 오후 4시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획 공연 '썸머싱어즈-맘마미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영화이자 뮤지컬 <맘마미아!>의 대표 주제곡을 합창으로 재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하모니, 라이브 밴드 연주와 영상미가 어우러져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객에게 깊은 몰입감과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합창단이 함께한다. 이들은 지난 7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합창 기초, 발성, 무대 안무 등 체계적인 연습을 진행하며 공연을 준비해왔다. 시민합창단의 진정성 있는 열정과 노력은 공연의 또 다른 감동 요소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별도의 사전 예매 없이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간은 약 60분이다.

관련 정보는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공연이 무더운 여름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으로 세대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 정원의 공간적 경계를 넘는 정원문화행사인 '2027 남도 정원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지난해 전남의 밭·풍류가 어우러진 전통정원 '애양단'을 뉴욕에서 선보이는 등 전 세계에 정원의 본고장 전남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그 명성을 잇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비엔날레는 주로 미술분야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다.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인문, 예술, 문화 분야를 넘어 정원 분야로 확장한 국내 유일의 행사다.

2027년 5월부터 6월까지 전남도와 담양군이 공동 개최하고 22개 시군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의 경계를 넘어서(Beyond the Garden)-시간과 공간의 향연 속으로'라는 주제로 정원의 공간적·개념적 경계를 허물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삶

전남도,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 개최

'정원의 경계를 넘어서-시간과 공간의 향연 속으로' 주제

의 방식을 제시하는 축제로 구성된다. 특히 자연과 예술, 생태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 지향적 정원문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호남의 3대 정원인 소재원과 가시문학의 본고장으로 남도의 정원을 잘 담을 수 있는 담양군 죽녹원과 관방제림, 국립정원문화원을 메인으로 구례 지리산 지방정원, 민간정원 30개소 등 22개 시군 정원 곳곳까지 확장해 개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담양군은 올해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2026년 기본·실시체계, 정원작품 공모전 개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5월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콘텐츠는 ▲세계적인 정원작가 등 응용문을 위한 설계 공모전 개최, 선정 작품

은 죽녹원~관방제림을 잇는 메인 공간에 연출 ▲도내 전통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연계한 '전남형 정원투어' ▲2027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연계 '정원에서 수목 전시회' 개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정원사 발굴을 위한 도민 참여형 정원조성 ▲'플라워쇼' 개최로 화훼·정원소재 생산농가 등 홍보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국립정원문화원과 협업, '전남형 정원관광'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7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콜라보 등 남도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정원, 생태문화 콘텐츠를 결합하고 세계적인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2027년에는 전남의 생태적 특성



과 정원 전통을 기반으로 한국형 정원의 매력을 선보이고, 2029년에는 국제 행사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혜경 기자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금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

금이 있습니다

노후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